

한국상하수도협회 탄생의 산파역



환경부 남궁은 차장은 상하수도국장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는 옛 속담이 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남궁은 상하수도국장의 관계가 곧 바늘과 실이 아닐까?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창립되기까지 그림자처럼 함께 해온 인물이 바로 환경부 남궁은 상하수도국장이다.

작년 3월 수도법 제39조 개정으로 한국수도협회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되고 수도사업자 및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협회의 당연직 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그 해 4월 설립준비위원회(15인)의 한사람으로 남궁은 국장은 앞으로의 협회의 핵대가 될 수 있는 회원구성, 임원, 총회 및 이사회, 회비 등 기본 조각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냈다. 환경부, 수도권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수도협회, 각 지자체 상하수도관련 단체, 상하수도 관련 업체 등 협회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조율 역할 역시 남궁은 국장의 풍부한 국제 경험과 외교 전략에 의해 가능했다는 주위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작년 12월 창립총회 및 협회 발족으로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공식적인 출범과 오는 1월 법정법인 등기완료로 국내 상하수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모든 상하수도인의 바람을 한 몸에 받고 탄생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정부, 민간단체와 이해당사자간에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완성된 집합체를 탄생시키기 위해 산파역할을 한 남궁은 상하수도국장의 발자취 역시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 및 협회의 수행과정과 함께 역사의 장에 남게 될 것이다.

모든것을 버리고 왔다

한국상하수도협회라는 건출한 협회를 탄생시키는데 밑조를 한 남궁은 국장은 말 보다 행동으로 출신수범을 보이는 현장에 강한 사람이다. 그도 그럴 것이 환경부에 오기



○ 일본 하수도협회 방문

○ 일본 하수도협회 견학자와 악수하는 모습



전, 연봉만 2억 원대를 자랑하는 프록터 앤amp; 갬블(P&G)의 아시아지역 본부(일본, 고베) 환경담당 부분부장으로 생활 안정이 보장된 자리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의 자리로 온다는 것에 대해 주위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환경부 상하수도국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먹는 물과 직결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언론과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매년 국감장에서는 뜨거운 논쟁의 핵심자리에 있었다. 남궁은 국장 역시 2001년 국감 당시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몸살을 겪었고, 정수장 발암물질 검출로 한번의 뒤흔거림을 맞은 바 있다.

상하수도협회 곁에는 남궁은 상하수도 국장이 있었다

이토록 사안이 민감하고 한번 이야기가 붙어지면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파급효과가 커서 공무원 생활의 이력이 나 있는 베테랑들도 손들고 고개를 돌려설래 짓는 곳에서 남궁은 국장은 1년 8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명 초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위의 의구심을 뒤로 한 채, 지금까지의 평은 "잘 하고 있다" 쪽으로 많은 수의 표가 몰린다.

일을 선택함에 소신이 있었다.

남궁은 국장은 73년 서울대 토목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이며,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생물막(Biofilm)을 이용한 상·하수 처리층의 유기성 오염물질 생분해와 제거'라는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이면서도 겸허한 자세로 참석하는 세미나 장마다 열정은 그칠 줄 모른다. 2000년 환경부에서는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인 상하수도국장(2급) 개방직 임용 선발시험위원회 개최로 총 6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남궁은 국장이 환경부와 인을 맺게 되었다.

2000년 10월 공식 취임하면서 언론에 관심을 끌었고 모 신문사와 인터뷰 내용에 "21년 간의 외국생활을 통해 얻은 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을 살려 고국의 환경행정 발전

에 기여하고 싶어 공직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그간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은 적극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해 환경부에 발을 딛은 남궁은 국장에 지난 1년8개월의 상하수도 업무는 작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 총탄이 날아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환경부 상하수도 국에서도 작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 그 안에서 물의 움직임 역시 매우 유동적이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조건도 수시로 변화한다.



2001년 한해 수돗물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은 환경부 그 안에서, 남궁은 상하수도 국장은 국제세미나를 준비해 가며 대학안을 내놓았다.



작은 전쟁 속에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 보다 발전된 상하수도의 시스템에 대해 연신 고민하고 하루 24시간이 수초처럼 지나간다는 남궁은 국장에게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이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